



# 중국판 88만원 세대 개미족(蚁族)의 개념, 발생 원인 및 현황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 머리말

얼마 전 폐막된 중국 양회(两会: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창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 실물경제를 직접적으로 강타한 2009년 한 해를 중국 고용시장의 최대 위기라고 한다면 2010년은 취업 상황이 가장 흑독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학생 취업난 해결을 취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해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판 88만원 세대인 ‘개미족(蚁族)’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개미족’이라는 용어는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공공관리학원 리엔쓰(廉思) 교수가 대학을 졸업한 뒤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20대 젊은이들의 삶을 기록한 책에서 유래했는데, 그의 설명에 의하면 개미족은 고학력, 저임금, 집단 거주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이 약소하지만 지능이 높고 무리를 지어 사는 개미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리엔쓰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개미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촌(聚居村)<sup>1)</sup>

1) 가장 대표적인 개미족의 쪽방촌은 중국의 실리콘 밸리인 중관촌(中关村) 근처에 위한 탕지아링(唐家岭)으로 원주민이 3,000명에 불과했던 변두리 지역에 개미족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쪽방촌을 형성했다. 현재 4~5만 명의 개미족이 거주하고 있다.

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출간한 책, ‘개미족’을 중심으로 개미족의 개념과 특징, 발생 원인 및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 개미족의 개념과 특징

중국에서 개미족(蚁族)이라는 용어는 ① 대학졸업자, ② 저소득 및 ③ 집단적으로 쪽방촌(聚居村)에 모여 생활하는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미족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개미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개미족은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로 대학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신세대 농민공(新生代农民工<sup>2)</sup>과 구별된다.

다음으로 개미족은 월평균 소득이 2,000위안 내외인 저소득층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보험 판매, 전자기계 판매, 광고영업, 요식서비스업 등 비교적 단순한 기술직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부는 실업과 반실업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미족은 비교적 교통편이 편리하고 방세가 저렴한 도시와 농촌의 경계지역 및 도시근교 농촌 지역의 쪽방촌에 모여 살고 있다. 현재 개미족에 대한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베이징(北京) 지역에만 1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미족’ 저자인 리엔쓰 교수는 상하이, 우한, 광저우, 시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2) Times of India 2010년 3월 18일 “Indians most open about shifting jobs”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biz/india-business/Indians-most-open-about-shifting-jobs/articleshow/5683679.cms>

## ■ 개미족 출현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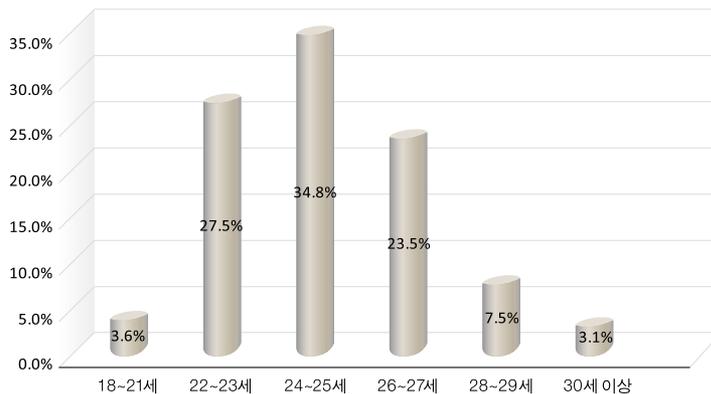
최근 중국에서 농민공, 농민, 먼직(下崗)근로자와 함께 제4대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개미족이 출현하고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표면적인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학교육 정책과 호구제도로 인한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노동력 시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대학교육의 문제, 특히 대학의 무책임한 양적 팽창과 사회적 수요 간의 차이로 개미족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대학 모집 정원을 확대해 왔는데, 2000년 107만 명 불과했던 대졸자 수는 1999년도 입학생이 졸업하기 시작한 2003년 최초로 200만 명으로 돌파했다. 이후 매년 50~60만 명씩 증가해 2009년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대졸자 수는 6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대학의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다 보니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개미족의 출현하게 되었다. 둘째로 중국 경제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촌이나 소도시에서 온 대졸자의 대부분은 성공의 기회와 발전 공간이 더 많은 대도시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발달된 대도시에는 인재가 포화 상태이고, 정작 인재가 필요한 경제가 낙후된 중서부 지역 및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셋째로 중국 취업정책의 조정이 개미족 출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호구제도에 의하여 인구를 관리하고 지역간 이동의 경우에도 호구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 소재지 호구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졸자 취업난이 심해지자 2003년부터 미취업 대졸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2년간 출신학교에 호구의 적을 둘 수 있도록 취업정책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조정은 미취업 대졸자가 계속해서 대도시에 남아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 개미족의 인구학적 특성

리엔쓰(廉思) 교수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개미족이 거주하고 있는 베이징 시 7개 지역 쪽방촌(聚居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세부터 29세까지의

개미족이 전체의 93.3%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대학졸업 후 2, 3년 정도가 지난 24세에서 25세의 연령대가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고, 졸업 후 경과 시간이 증가할수록 개미족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개미족은 대학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93.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졸 1년차가 33.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미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이 졸업 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유동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개미족의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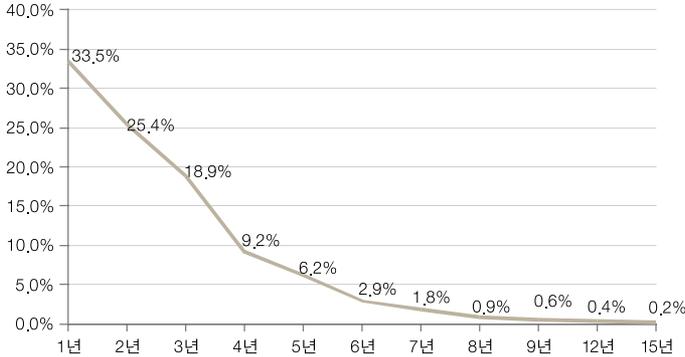


출처 : 廉思(2009), 『蚁族』, 广西师范大学出版社.

개미족 중 절대 대다수는 농촌 지역, 현급시(縣級市) 등 경제발전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 출신이 54.7%로 가장 많았고, 현급시 출신이 20.7%, 지급시(地級市)<sup>3)</sup>가 17.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직할시 및 성정부 소재지(省會) 출신은 단지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구(戶口)별로 살펴보면, 외지 도시 지역 호구를 가진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고, 외지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25%로 나타났으며, 베이징 시내호구와 베이징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각각 9%,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미족 중 대부분은 경

3) 지급시(地級市)는 인구 25만 이상의 현급시(縣級市)와 성(省) 사이의 행정 구역이다.

[그림 2] 졸업 후 경과시간 대비 개미족의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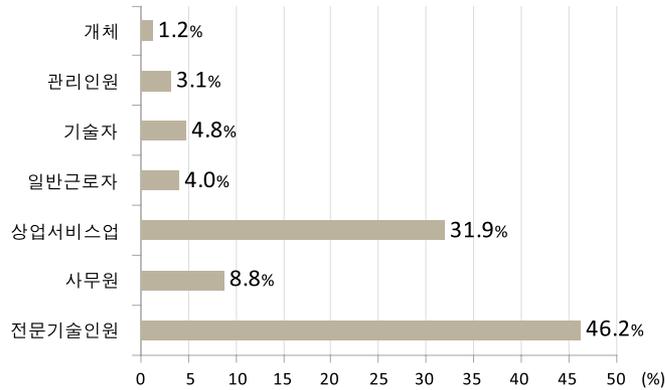
출처 : 廉思(2009),『蚁族』, 广西师范大学出版社.

제발전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 이 중 베이징 시 주변부에 위치한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하남(河南), 내몽고(內蒙古) 등의 출신으로 이들은 고향의 경제발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베이징 등 경제가 발전한 대도시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호구제도로 인하여 도시 지역 호구를 가진 사람만이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외지호구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개미족은 도시 지역에서 제공하는 의료, 실업보장 및 기타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사회보장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 직업 및 근로조건 현황

개미족 중 대부분은 직업(전임, 겸임, 인턴, 프리랜서 등 포함)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실업과 반실업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전문기술자, 상업서비스업, 사무원, 기술자 및 일반근로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기술자가 전체의 46.2%로 가장 많았고, 상업서비스업이 31.9%로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인터넷 유지보수, 프로그래밍 등 전문기술업종의 종사자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 고객센터, 판매 및 직원 등 상업서비스업과 사무직 종사자가 많았다.

[그림 3] 개미족의 종사하는 직종



출처 : 廉思(2009), 『蚁族』, 广西师范大学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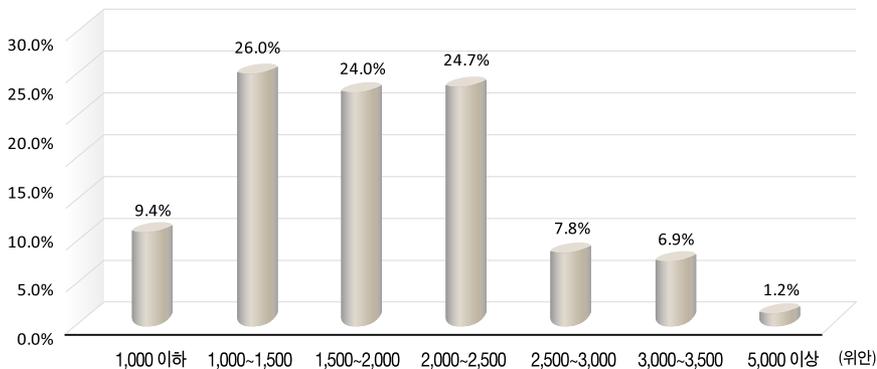
주목할 점은 개미족이 종사하는 직종 중 개체경영자(소규모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미족의 학력수준과 관련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개미족은 대졸자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체경영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개미족은 사/민영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국가기관 및 국유사/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은 단지 11%에 불과했다. 이는 개미족의 고용안정성이 비교적 불안정하고,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엔쓰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사업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개미족의 비율은 32.2%이고, 조사 대상자 중 38.5%는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장 방면에서 조사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57.5%는 실업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 등 3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였고, 5.6%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37.0%는 3대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신규채용을 억제하면서 노동력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개미족이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미족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생활 등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여 사용자와의 노동력 거래에서 실질적 불평등에 직면하게 되어 이러한 현상이 가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 ■ 개미족의 소득 및 지출현황

개미족의 임금은 농민공의 임금수준과 비슷한 월 1,000~2,500위안으로 조사 대상자의 74.7%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sup>4)</sup> 월평균 소득(세전)은 1,956위안으로 2009년 도시 지역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726위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베이징 시의 높은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수입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식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한 달 평균 529위안(일일 평균 17.6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비(377위안), 교통통신비(224위안)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개미족의 월평균 소득(세전) 현황



출처 : 廉思 (2009), 『蚁族』, 广西师范大学出版社.

또한, 개미족은 다른 계층보다 소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미족의 소득 위험은 도시 지역 주민의 3.5배 이상으로, 소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지역 주민과 비교해도 6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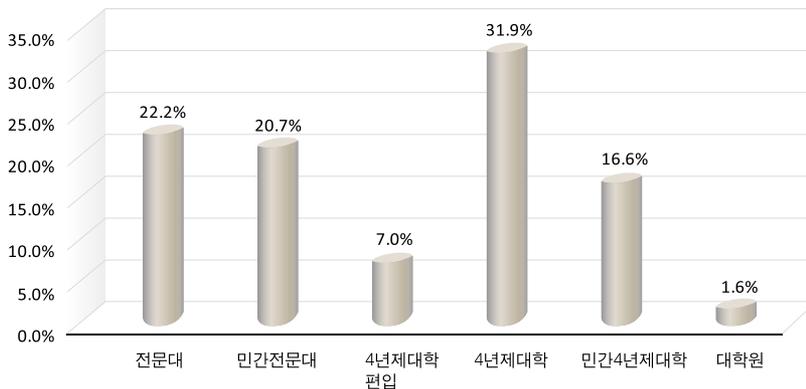
4)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에 의하면 2009년 농민공 월평균 소득은 2008년 보다 77위안 증가한 1,417위안으로 나타났음([http://www.stats.gov.cn/was40/gitjj\\_detail.jsp?searchword=%B9%A4%D7%CA&channelid=6697&record=12](http://www.stats.gov.cn/was40/gitjj_detail.jsp?searchword=%B9%A4%D7%CA&channelid=6697&record=12)).

자의 평균 소득이 1위안 증가할 때마다 개미족의 소득 증가는 0.65위안으로 도시 지역 주민의 1.15위안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 교육 현황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미족은 신세대 농민공과 달리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계층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 4년제 대졸자가 54.1%, 민간 전문대(民办大专), 민간 4년제 대졸자가 37.3%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1.6%로 나타났다.

[그림 5] 개미족의 교육수준 현황



출처 : 廉思(2009), 『蚁族』, 广西师范大学出版社.

한편, 개미족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직업, 경제력 및 가정환경에 따라 일정 정도 차이를 보인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인원, 전문기술인원의 비율은 각각 3.5%, 8.5%로 차지했고, 이 중 관리인원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가정의 연간 소득이 10만 위안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아버지 직업이 관리자, 전문기술인원 등 가정환경이 비교적 좋은 자녀들의 교육수준(4년제, 대학원

졸업)이 높았고, 개체경영, 면직(下崗) 근로자, 농민 등 하층 계급의 자녀들의 교육수준(전문대 졸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사회에도 교육 대물림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판 88만원 세대인 개미족은 대졸자, 저소득, 집단 거주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농민공, 농민, 면직(下崗) 근로자와 함께 중국의 4대 소외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2009년 4/4분기 언론 브리핑에서 2009년 연말 현재 대졸자 취업률이 87%라고 발표하면서 2010년 대학졸업 예정자가 지난해보다 20만 명 늘어난 630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취업재수생 80만 명과 해마다 수백 만 명의 중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졸업자 및 농민공이 고용시장에 한꺼번에 진입하고 있어 2010년 대졸자 취업난은 2009년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개미족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은 농민공, 농민, 면직 근로자 등 기타 소외계층과 달리 고등교육을 받았고,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정치 의식과 동일 집단 간의 연대 의식이 높기 때문에 사회 소외계층을 방치해 둘 경우 사회 불만세력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정책이 필요하며, 중국 정부가 개미족과 관련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KL**